# 자정까지 민원서류 발급 OK

## 광산 '언제라도 민원센터' 개소 1년 성과 톡톡

## 민원인 4만 8천여명 방문, 11만 5천여건 해결

주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지역민을 위해 광산구가 개설한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야간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개소 1주년을 맞은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이용객의 60.5%가 야간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30일 삼성홈플러스 하남점 2층에 문을 연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는 개소 1년만에 4만8천181명이 방문, 11만5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특히 전체 이용객의 60.5%인 2만9천149명이 일반 구청과 동사무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언제라도 민원센터에 대한 민원인들의 호응이 늘면서 행정안전부로 부터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센터는 개소 당시 전국 최초로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공무원들이 상주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 340여종을 발급해 관심을 모았다.

광산지역은 지역주민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여서 야간시간대에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한편 광산구는 최근 개소 1주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앞으로 수완, 하남 2지구에 3만1천여세대 9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며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에 미니 구청 역할을 부여해 언제라도 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담양 메타세쿼이아 설경

강풍과 함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지난 5일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 화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 '예산 절감' 우수사례 선정

### 장관 표창·포상금 2억 받아

화순군이 짓고 있는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화순군은 화순읍 대리 공설운동장 인근에 지난 4월부터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이 복합건물은 공사비 절감과 함께 건물 이용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최근 행안부로부터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별도로 지으면 461억원이 들어가지만 이 건물은 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신축비가 330억원밖에 들지 않아 13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 관리비도 연간 7억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매년 배드민턴, 배구, 탁구, 태권도 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친구야 힘내렴, 우리가 있잖아"

### 영암고 학생·교직원들 뇌종양 투병 김민 군 돕기

연말을 맞아 영암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뇌종양 투병중인 김민(17·영암고 2년) 학생 돕기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영암고등학교는 최근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투병중인 김군 가족에게 성금 251만원을 전달했다.

김군은 올해 초 수업 도중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김군은 지난 9월 1차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앞으로 2차와 3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현재 매주 1차례씩 서울로 통원 치료중인 김군은 각종 검사 및 치료비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초를 재배하는 김군의 아버지는 올해 가뭄 등으로 약초마저 고사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비마련도 힘겨운 실정이다.

이 같은 어려운 형편을 전해들은 영암고등학교는 학생회가 주축이 돼 지난 1일부터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수시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교 동문과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도재 영암고등학교장은 "모범생인 (김)민이가 병마와 싸워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면서 "김민 학생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위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용현(56)씨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민이가 병마를 이기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의 (061-473-2101)

/영암=박진표 기자lucky@

# 강진청자, 中 '아시아 예술 박람회' 초청받아

### 국보급 청자 재현품 전시·물레성형 시연 등 홍보

강진청자가 중국에서 열리는 '2009 아시아 예술 최첨단시장 박람회(AATS)'에 초청됐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고전예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이 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첫 번째 박람회로 내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진 청자와 전주 한지가 초청됐다.

강진군은 이 박람회에서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년비색 고려청자와 남도답사 1번지의 주요 관광유적지, 남도를 대표하는 한정식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서 열리는 제14회 강진청자문화제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부스에는 강진산 국보급 청자재현품 20여점을 전시하는 한편 물레성형 시연, 청자 종이접기 체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의 오감(五感)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장흥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일선 법원 직원들이 매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을 찾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구회근) 직원 20여 명으로 결성된 '어울림회'는 지난 4일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노인 복지시설 '은빛마을'을 방문해 쌀과 기저귀, 물티슈 등 7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5일에는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소망의 집'을 찾아 라면과 로션·샴푸 등 70만 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장흥지원 '어울림회'는 지난 1990년대부터 '나눔에서 행복을 찾자'라는 취지로 결성,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매년 불우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함평 학교우체국 새 단장

함평 학교우체국이 현대식 건물로 개축됐다.

함평우체국(국장 박한구)은 학교면 사거리 신시가지로 이전 신축하고 지난 2일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축식을 가졌다.〈사진〉

이번에 신축된 우체국 청사는 대지면적 945㎡, 연면적 390㎡ 규모의 지상 2층 현대식 건물로 옥상에 복합 판넬 구조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최신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기존 우체국 건물은 30여 년 전 지어져 우체국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박한구 우체국장은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우편물 배달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체국으로 거듭 나겠다" 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나주축협 '12월의 품질경영대상'

나주축협(조합장 전준화·사진)이 농협중앙회 주관 '이달의 축산물품질경영대상' 조합으로 선정됐다.

나주축협은 축산물 계통출하 및 공동판매, 브랜드육 판매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2월의 축산물품질경영대상 조합으로 선정돼 무이자 자금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준화 조합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는 축산물을 생산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경영대상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축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민원 방문예약 코너 신설 등

# 장성군 홈페이지 새 단장

장성군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다. 장성군은 지난 8일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검색이 용이토록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했다.

장성군은 이번 개편에서 메인화면 위치를 변경하고 게시판 관리 방법 등을 변경했다.

또 군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포토뉴스와 민원 방문예약 코너를 신설하고 지역 인재 활용을 위해 강사뱅크를 구축했다.

장성군은 앞으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서비스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